

강화 고려저수지 비상 대처 합동훈련 성료

[문찬식]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비상 대처 합동훈련 실시...재난 대응 능력 배양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가 '2025년 비상 대처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뉴스) 문찬식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가 14일 강화군 내가면 고려저수지에서 '2025년 비상 대처 합동훈련'을 실시, 재난 대응 능력을 배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고려저수지는 총저수량 431만 톤으로 885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 중으로 이번 훈련은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로 저수지 제방 월류, 슬라이딩, 붕괴 상황을 가정, 주민 대피 및 응급 복구 조치를 실제로 실행, 비상 대처계획을 점검했다.

훈련에는 인천시, 강화군, 강화소방서 및 내가면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주민이 참석, 비상 연락망 가동, 긴급 복구·주민 대피 훈련 등을 실시, 실제상황 발생 시 직원들의 비상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양희충 지사장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로 인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주민이 힘을 합쳐 선제적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훈련 참가자들에게 당부했다.